

혁신도시 공공기관 내년말 입주 난망

■ 광주시의회 시정 질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공공기관들이 애초 목표인 내년 말 입주가 어려울 것인 전망이 나왔다.

기반시설공사 추진율이 저조한데다 이전기간 중 일부가 아직까지 부지매입을 하지 않았거나 상당수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광주시의회 이은방(민주·북구 6)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공공기관

이은방 시의원 "단 한곳 착공·3곳 부지매입 안해"

15개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만 지난 4월 착공했을 뿐 나머지는 착공을 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등 3개 기관은 아직까지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 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기관은 건축허가조차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사업 착공 예정인 공공기관들 또한 대부분이 착공 예정시기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신사업 공사기간이 1년6개월~2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 공공기관 전체가 내년 말 입주하기로 한 애초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부지조성 공정과 부지 분양도 저조하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말 현재 부지공사 공정률은 78.5%, 기반시설공사인 진입도로와 상수도의 공사 추진율은 44.8%에 그치고 있

고, 부지 분양률 또한 57.7%로 낮다"라며 "이 가운데 산학클러스터용 부지 등 산업용지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부지조성의 23.9%를 광주도시공사가 개발하는 상황에서 광주도시공사는 최대 5.40%의 높은 비율로 2420여 원의 엄청난 금액의 공사비를 발행해 이러한 투자비를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혁신도시가 애초 목표로 지역발전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염전 3곳 토양서 살충제 성분 검출

소금출하 정지 권고

전남도는 29일 일부 염전 인근 토양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해당 염전의 소금에 대해 당분간 출하정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해남·신안·영광군 염전 8곳에서 토양 16개 샘플을 채취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3개 염전(해남 2·신안 1) 샘플에서 엔도수판(Endosulfan)이라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엔도수판은

포유류나 어패류, 곤충류를 없애는데 사용하는 살충제로 과거 염전 증발지 바다에 구멍을 남기는 것을 제거하는데 쓰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도는 엔도수판이 토양 1kg 샘플당 0.07~1.74PPM이 검출된 만큼 해당 염전 3곳의 소금을 수거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농약성분의 함유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도는 또 이곳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서도 당분간 출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농식품부측은 다음주 초까지

검사 결과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염관리법'에는 염전이나 토양을 대상으로 한 잔류농약 기준은 없는 상태로, 고추·배추 등 작물과 식품에 대해서만 잔류농약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살충제 성분이 나온 염전들은 지난번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라며 "살충제의 경우 토양에서 분해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므로 살포시기도 언제든지 저 알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야문화전당 배수, 50년 흉수 빈도 설계 문제"

손재홍 지적... 광주천 만수위때 역류 가능성 커

광주 동구 구도심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현재 건설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일대의 침수 피해 우려(본보 8월31일자 1면)가 광주시의회에서도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손재홍(민주·동구 2) 의원은 29일 시정 질의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사업의 핵심인 문화전당 건립공사가 건축설계상 및

물과 하수 배수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문화전당의 내부 배수설계를 50년 흉수빈도(시간당 96.4mm)로 설계했지만, 최근 10년 동안 국내 시간당 강수량은 50년 빈도보다 높은 강수량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라며 "4대 강 사업과 세종시, 광주천 정비사업 등의 경우 200년 흉수빈도로 설계된 점을 감안하면 문화전당

설계는 매우 안일한 대처"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광주 동부경찰서 앞의 경우 관로 지름 합이 1500mm인 반면, 배수관로는 800mm에 불과하고 문화전당 내에서 서석로 입구 맨홀까지의 600mm 2열에서 600mm 1개로 배출되도록 설계돼 있어 홍수 때 오수 흐름의 병목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특히 "광주천 만수위 시 역류할 가능성이 큰데 취약한 우수처리시설의 문제점과 최근 10년간 집

중호우 현상 등을 종합하면 아시아문화전당의 침수우려가 매우 크다"라며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수해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배수설계를 50년 흉수빈도로 한 것은 집중호우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며 관계의 용량도 배수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조례 불이행 많다"

폐석면광산 주변 토지오염 심각

광주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 중 상당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손재홍(민주·동구 2) 의원은 29일 열린 시정 질의에서 "380여 개의 광주시 조례 중 조례 공포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기본계획 수립 등의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조례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조례가 새롭게 만들어질 때 대부분 조례가 목표로 하는 사항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해당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계획의 수립은 조례의 핵심사항인데도 공포된 조례 중 수십 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손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청소년문화예술회관 진흥조례 ▲빛물관리에 관한 조례 ▲유동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 ▲경계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건축디자인 진흥조례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손 의원이 지적한 10건의 조례 중 2건은 미흡하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나머지는 상위법 개정과 중앙부처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계획이 미수립됐다.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석면 폐광산 주변지역의 토지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이 29일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9개 석면광산 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9개 광산 주변토양에서 2만3542개의 시료를 조사한 결과 41%인 9661개에서 위해성이 의심되는 석면농도(0.25% 이상)가 나왔다.

또 2078개 시료에서는 석면이 육안으로 확인되거나 석면농도가 1%를 넘었다. 석면농도 0.25% 이상인 지역의 면적은 1344만㎡였고, 이 중 시급한 광해대책이 필요한 면적은 480

만㎡였다.

지금까지 전국의 석면 폐광산이 21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난해 전국광산실태 조사 결과 17개가 추가로 발견돼 모두 38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전국 21개 광산 주변의 농산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경각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8만592㎡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영남(2만9864㎡), 충청(2만1105㎡), 경기(1만4050㎡), 호남(8729㎡), 강원(6천844㎡) 순이며, 재배 농산물의 80%는 버렸다.

/연합뉴스

식칼로 부하 얼굴 면도·귀 물어뜯기·군화 냄새 맡기...

병사보다 더한 軍간부 가혹행위

국방부가 지난 2006년부터 대대적으로 병영문화 개선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병영 내에서 군 간부들의 가혹행위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방부가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국정자료에 따르면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했다가 형사

처벌된 군 간부들은 2009년 64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 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육군의 모 중위는 식칼을 이용해 부하의 얼굴에 면도질하다가 적발되어 감봉 3개월에 처했고, 마늘을 2회에 걸쳐 5개씩 먹인 하사도 감봉 2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4층 창문으로 올라가게 한 뒤 다리를 흔들도록 강요한 상사와 부하의 귀를 물어뜯고 욕설을 한 하사도 각각 감봉 2개월,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모 중사는 병사에게 '멘 소래담'을 발랐다가 적발되어 징역 4월에 처했고, 모 대위는 병사에게 1시간 동안 비를 맞게 했다가 징역 3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모 중사는 담배를 피우는 병사들을 모아 강제로 담배를 먹게 해 감봉 2개월에 처했다. 누워서 머리와 다리를 들게 한 뒤 음식을 먹이고, 빨래집게로 코와 아랫입술을 집어 고통을 준 하사도 적발됐다.

해군 간부들의 경우 군화 냄새를 강제로 맡도록 했으며, 라이터로 화상을 입혔다. 마늘과 비누, 음식 찌꺼기 등을 먹이고, 코털 뽑기를 강요하다가 적발된 간부도 있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구형 군복 차이점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전 군에 보급되는 디지털무늬의 차세대 신형 전투복(오른쪽·육군)과 구형 얼룩무늬 군복의 차이점에 대한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새 전투복은 흙·침엽수·수풀·나무줄기·목탄색 등 화강암 무늬의 디지털 5도색으로 만들어 위장 효과를 높였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전 군에 보급되는 디지털무늬의 차세대 신형 전투복(오른쪽·육군)과 구형 얼룩무늬 군복의 차이점에 대한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새 전투복은 흙·침엽수·수풀·나무줄기·목탄색 등 화강암 무늬의 디지털 5도색으로 만들어 위장 효과를 높였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대산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NAVER 주스(D) 대산프리모 검색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2011년 신제품 50만원~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수 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납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납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범죄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안전과 전통적인 집단위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할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